

예배순서

| | | |
|---------|--|--------|
| *경배와 찬양 | 임재 /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진정 사모하는 /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라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
| 대표기도 | | 전승엽 |
| *성경봉독 | 신 8:11-18 | 이지윤 |
| 말씀 |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살기 | 김상범 목사 |
| 응답찬양 | 새로운 마음 | 다같이 |
| *봉헌 | | 다같이 |
| *봉헌기도 | | 김상범 목사 |
| 광고 및 환영 | | 하지수 |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 다같이 |
| *축도 | |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새로운 마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살기(신 8:11-18)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웨이코 쪽에서 묵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 광야 시리즈가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그 후속편 '광야를 살다', 그리고 광야 시리즈 완결편인 '가나안에 거하다' 입니다. 광야의 마지막은 가나안에 거한다는 아이디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하여 산을 오르는 등산의 과정과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길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인생은 철저히 과정도,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인생의 자연스런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죄에 대한 징계로만 여기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는 가나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훈련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곳에서는 먼저 의식주 훈련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인내하고 주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호하던 신앙의 영역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광야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광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광야보다 가나안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광야시리즈의 완결편을 '가나안에 거하다' 라고 쓰신 것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생활은 광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목생활과 정착생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집도 짓고, 부의 증식도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도 해야 하며, 위험을 위해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본문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지 모르지만, 사실 모세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가나안에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치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을 고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위기들입니다. 우선, 가나안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내 소산, 내 재산,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두번째 위기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땅의 소출이 과연 내 노력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겨울 땅의 소산을 내가 농사지어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가나안의 세번째 위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 재산 증식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바알신은 다른 대단한 우상이 아니라, 풍년 기원의 신입니다. 세상에는 재산 증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주식, 부동산 투자 비결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기했던 바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만 그것을 터부시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대단히 쉽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나안에서 이런 패턴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광야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위험성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를 극복한 사람들보다 가나안을 극복한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이 곳이 좋사오니'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순례자의 정신을 유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교회, 소셜, 취미, 가정 다 챙기면서 깊은 영성 누리긴 쉽지 않습니다. 최 우선순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산책

또한, 가나안에서는 나의 창고와 재산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상으로 탐바꿈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에서의 자산 증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산 증식에 너무 몰두하면, 우리 마음은 재산과, 그 재산이 있는 이 땅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 재산이 바알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에서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려놓는 기도란 쉽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 놓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대상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야 영성은 갈망하는 영성이요, 부르짖는 영성입니다. 간절함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영성을 가나안에서도 유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광야훈련을 하는 것은 이러한 영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가나안에서 마치 광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팀을 이뤄서 함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가나안의 위기를 광야 영성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2. 1번 질문과 연계해서, 나에게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3. 가나안에서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나눠주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토요한국학교 교사 모집

2023년 가을학기 학생 등록 및 교사진 모집(유급)
문의 및 지원: 김효진 집사(hellozini@gmail.com)



헌당기념 신청 QR

교역자 동정

김준섭 담임목사 휴가(6/12-6/18)
이강현 목사 휴가(6/6~6/27)

바자회

일시 : 8/12(토) 오전 10시~오후 1시
목적 : Asian Family Support Services of Austin(AFSSA)를 위한
펀드레이징 도네이션 받습니다.
기간: 6/25 - 7/30까지 6주)
장소: 유치부 옆 한국학교 사무실
물품: 성인 및 어린이용 의류, 도서, 장난감, 가방, 신발 등
주최: 에스더 여성교회
문의: 강진실 집사 (jinsilkang09@gmail.com)

환송

이보배 (싱가포르로 이주)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
|------|-----|-------------------|
| 담당목사 | 김상범 | cptksb3@gmail.com |
| 지도장로 | 김종환 | jbella@utexas.edu |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 | |
|--------|-----|--------------------|
| 라이드 팀장 | 오은비 | eunbe.or@gmail.com |
| 새가족 팀장 | 박샤론 | Sp9316@gmail.com |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